

목포 상수원 '대동댐' 함평군에 팔린다

목포시·함평군, 52억2000만원 10년 분할 조건 합의

1981년 목포시가 건설 ... 2006년부터 상수원 기능상실

한때 목포시 상수원이던 함평 대동댐이 함평군에 팔리게 됐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매각 협상 난항으로 단수 조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던 대동댐 매각과 관련해 목포시와 함평군이 매각 금액과 조건 등에 잠정 합의했다.

목포시는 함평군 대동면 용서리 일원 102만㎡에 담수 용량 900만t 규모의 대동댐을 함평군에 52억2000만원에 10년 분할 조건으로 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와 함평군이 이견을 보인 댐 비상재해대책계획 수립 용역은 함평

군이, 정밀안전진단은 목포시가 맡기로 했다.

이 댐은 목포시가 지난 1981년 73억원(IBRD 차관)을 들여 건설해 상수원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2006년 주암댐, 탐진댐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사실상 상수원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함평군에 댐 매입을 요청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목포시는 지난 23일 대동댐에서 함평으로 공급

하던 원수 5000t의 공급을 중단하며 압박했다.

댐 건설 당시 무상 공급하기로 한 원수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황용 목포시 수도행정과장은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4억원 정도의 원수를 30년 가까이 함평군에 무상으로 공급했다"며 "최근 잠정 합의한 매각 계약을 다음달까지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목포 = 고규석기자 yousou@



장보고 독서·토론 아카데미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읽은 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목포시 '시민의 상' 후보자 모집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체육·효행·특별활동 등 6개 부문

목포시가 '시민의 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목포시는 함평군 대동면 용서리 일원 102만㎡에 담수 용량 900만t 규모의 대동댐을 함평군에 52억2000만원에 10년 분할 조건으로 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함평군 대동면 용서리 일원 102만㎡에 담수 용량 900만t 규모의 대동댐을 함평군에 52억2000만원에 10년 분할 조건으로 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목포대, 교육역량강화 선정

21억2700만원 지원 받는다

목포대가 교육부의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돼 21억27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는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1, 2단계 평가를 통해 150개(분교 3개교 포함) 신청대학 중 기본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 82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목포대를 포함한 상위 72개 대학은 1단계 정량평가(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교육투자 등) 결과로 지원을 확정했다.

목포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무형약을 통해 문화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시행, 목포역을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남도의 문화예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 = 김병관기자 dss6116@

목포역·일로품바보존회 '상설문화공연' 업무협약

철도고객·시민대상 문화공연

목포역(역장 김종만)은 1일 (사)일로품바보존회와 지역문화 및 녹색철도 발전을 위한 '상설문화공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목포역은 광장 등 공연장소 제공과 문화공연 활동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 일로품바보존회는 철도이용객과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문화 브랜드 상승과 공연문화 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목포역은 '주말에는 운전대를 놓자'란 슬로건으로 매일 교통안전캠페인 행사와 더불어 지역 내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녹색

생활운동의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김종만 목포역장은 "이번 상호업무협약을 통해 문화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시행, 목포역을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남도의 문화예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 = 김병관기자 dss6116@

장보고 독서·토론 아카데미 인기

창의성·표현력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자리매김

완도군 초·중학생 46명 참가 2박3일 열띤 토론

장보고 독서·토론 아카데미가 창의성과 표현력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일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상)에 따르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장보고 독서·토론 아카데미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완도초등학교 외국어체험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아카데미에는 완도군 관내 초·중학생 46명이 참가해 2박 3일간 활발한 독서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전국 유수의 강사진이 팀-티

칭 방식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은 토론의 기본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힌 후 3번의 토론을 거쳐 토론 결승대회를 갖는 실질적인 진행으로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지난해 제1회 캠프에 참가했던 고등학생들이 토론 활동을 보조하고 직접 학생들 토론에 관정단으로 참여해 선·후배 간의 정도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캠프에 참가한 최모(14)양은 "토론을 통해 나와 다른 친구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고 친구랑 화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다"며 "다음 캠프에도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지도한 강사들 역시 학생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서로 협력하며 논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카데미 기획과 운영을 맡은 노인석 소안초등학교 교장은 "글로벌 인재 키우고 창의성과 표현력을 성장시키는 데는 독서와 토론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교육의 미래를 보게 됐다"며 "완도 장보고강화회의 후원에도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완도 = 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전북

전주 덕진공원 일제잔재 철거

취향정·무덤이 제방 등 ... '전통정원' 조성키로

'창포와 연꽃의 화원'으로 불리는 전주 덕진공원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시설물들이 철거된다.

이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사업'을 제대로 완성하려면 역사바로세우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전북대 김정문 교수가 최근 덕진공원 일대(357만㎡)의 인문·역사·자연환경을 조사한 결과 아직 일제강점기 시설물들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 지역 역사학자 등이 참여하는 '덕진공원 역사바로세우기 자문단'을 구성, 전면 조사에 나서 왜색이 짙은 시설물들을 이전 또는 철거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시설물은 1917년 건립과

박기순이 자신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덕진 연못 주변에 건립한 정자인 취향정(醉香亭)이다.

그는 이곳에 사람들을 모아 시회(詩會)를 여는 등 전주 사람들의 휴식처를 사유화했으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비석을 세우기도 했다.

또 1934년 일본인 전주읍장 '후지타니 사쿠지로'가 현재 전북대 학생회관 옆에 세운 덕진공원지비와 당시 치수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무덤이 제방 등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시설물들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현관인 '수당문(秀堂門)'을 2005년 철거하기도 했다.

/전주 = 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일제 약탈 '쌍림열반상도' 돌아왔다



동국사가 일본 경매시장을 통해 되찾아 온 쌍림열반상도.

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 군산 동국사 종결 스님 공개

일본 경매시장 출품된 것 입수 ... 첫 가로형 열반도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가 일본이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쌍림열반상도(雙林涅槃相圖·사진) 1점을 공개했다.

쌍림열반상도는 쌍림(사라쌍수) 아래에서 부처가 열반에 든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동국사 주지 종결 스님은 지난 6월 말 불화 1점이 일본 경매시장에 출품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치노베 쇼코(一戶彰晃) 아오모리 운상사 주지에게 부탁해 경매로 이 그림을 입수했다.

그림은 지난 25일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16~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쌍림열반상도는 가로 225cm·세로 93cm 크기의 마(麻) 소재 바탕에 그린 진채(眞彩) 불화로 위쪽에 막대를 끼울 수 있는 고리가 달려있다. 녹색과 적색의 석채 안료와 금분이 사용됐고 부처의 열반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석가가 가섭에게 두발을 보이는 장면, 여덟 왕이 사리를 나누는 장면,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든 석가를 중심으로 보살들과 제자들이 애도하는 장면도 있다. 사라쌍수는 두 가지를 구부려 하 나뉜 모습을 하고 있고, 화면 상단에는 석가가 열반에 들자 하늘

에서 마야부인이 내려와 애도하는 장면과 공중에서 쏟아지는 오색사리와 가야금, 거문고 등 조선 전통악기가 화폭을 채우고 있다.

그림을 감정한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일부 덧칠한 부분이 있으나 진품이 확실하며 고증을 거쳐 국적과 제작연대가 확인되면 처음으로 발견된 가로형 열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재 전북도립미술관장은 "이 작품이 어떻게 일본에 갔는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국내에 다시 돌아와 다행스럽다"며 "고증을 거쳐 연대가 확인되면 조선시대 불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팔상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군산 = 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남원시, 20일까지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남원시는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파옥, 용도변경, 대지분할, 합병 등 변동분 169호이며 시청 및 읍·면·동지역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열람을 통해 의견이 제출될 경우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 영향여부 등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택 소유자에게 9월30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남원 = 백성기기자 bs8787@

고창군, 고품질 쌀 생산위해 병해충 방제 나서

고창군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가 농가 당부했다.

군은 농촌진흥청과 군 농업기술센터의 합동출발단인 병해충 정밀예찰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과 흑명나방이 일부 논에서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흑명나방은 예벌제 때 방제에 실패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벼잎을 돌돌 감싸는 피해 없이 1~2개씩 보일 때 곧바로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벼멸구와 이화명나방도 함께 방제함으로써 수량과 미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창 = 음창기기자 cy0370@

전주시, 한옥마을 175대 가능 건물식주차장 완공

전주시는 연간 500만명이 찾는 한옥마을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식 주차장을 완공, 3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주차장은 3000여㎡ 부지에 175대(지상 82대, 지붕층 93대)를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되며 요금은 처음 1시간은 무료이고 이후 30분당 500원이다. 종일 주차는 4000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나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 불법 주차·차로 주님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주 = 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대 북문 종점 ... 시내버스 노선 5일부터 운영

전북대는 5일부터 전북대 북문(예솔대 부근)을 종점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선은 4개로 전북대를 출발해 송전동·전주역·아중리·팔달로·전북대 노선(4-1), 그 역방향 노선(4-2), 팔달로·전동·경화동·백제로 노선(5-1), 그 역방향 노선(5-2)

등이다. 운행시간과 횟수는 오전 6시 5분 첫차를 시작으로 오후 10시 26분까지 25~27분 간격 매일 152회가 운영된다.

전북대는 올해 초부터 전주시와 시내버스 협의를 진행해 시내버스 운영을 성사시켰다.

/전주 = 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인사비리' 김호수 부안군수 구속

전주교도소에 수감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 은닉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군수를 이 같은 혐의로 이날 초소에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기소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김 군수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군수를 두 차례 소환해 증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김 군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바 있다.

/부안 = 정재용기자 jiy0681@